

## 1920년대와 1960년대의 패션에 나타난 유사성에 관한 연구

정 현 숙<sup>†</sup>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 A Study on the Similarity of Fashion in the 1920's and 1960's

Hyun-Sook Chung<sup>†</sup>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03. 10. 30. 접수 : 2003. 12. 15. 채택)

####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similarity of fashion in the 1920's and 1960's. Fashion is a reflection of Zeitgeist. The similarity of fashion appeared in the similar social ideal period. The fashion of the 1920's and 1960's have a lot of similarity in many respects. Androgyny was the new word. The woman cut her hair short, wore short skirt, and projected a self-confidence that was considered by many to be too masculine. The new fashions also appeared very youthful. The cult of eternal youth was born. The mature woman was no longer requested. Instead, in the face of changing lifestyles and extremely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taste ran in favor of a young, athletic, and mobile ideal. The new fashions de-emphasized curvaceous shapes through short dresses and short hair-both styles were supposed to express youthfulness. Characteristic of the times was the short loose dress: straight silhouette disguised feminine curves. The new dresses were invented for very young, slim, and wide-eyed women. The common Zeitgeist of the 1920's and 1960's represents the cult of youth and the adoption of innovative style, which emphasized decoration-cleared simplicity, functionality, practicality, activity, androgyny.

Innovative short skirt, youth fashion, androgynous style, unisex style, tubular silhouette, short hair style, and eyeline-emphasized makeup were analyzed by the similarity of fashion in the 1920's and 1960's.

*Key words:* androgynous style (양성적 스타일), innovative style (혁신적 스타일), the 1920's and 1960's (1920년대와 1960년대), the similarity of fashion (패션의 유사성), youth fashion (젊은이 패션).

#### I. 서 론

패션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Flugel<sup>1)</sup>은 복식의 유행이 건축과 실내장식 같은 다른 유행과 어떤 유사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의복에 있어서든 다른 것

에 있어서든 성공적이 되려면, 그것들이 시작되는 시대에 널리 유행하는 이상과 새로운 패션이 일치해야만 한다. 유사한 사회적 이상이 분명한 문화적인 시기에는 복식의 어떤 유사성을 알 수 있다. 종교적 가치가 지배적일 때 복식은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의 느슨한 의복으로 신체를 가리는 경향이 있었다.<sup>2)</sup> 반

이 논문은 2000학년도 부경대학교 기성회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sup>†</sup> 교신저자 E-mail : chunghs@pknu.ac.kr

1) J. C. Lauer and R. H. Lauer, *Fashion Power*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1), pp. 6-19.

2) M. J. Horn and L.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uffin Company, 1981), p. 127.

면 그리스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 같이 인간 중심의 생활일 때 복식은 인체를 드러내거나 강조하여 인체미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1920년대와 1960년대는 20세기의 대격론의 시대로써 여러 면에서 서로 유사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변화로 인하여 대담한 젊은이 패션, 대중음악, 춤 등 대중문화는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다.<sup>3)</sup>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달, 젊음에 대한 승배는 새로운 패션을 창조해 냈다. 본 연구에서는 대 격론의 시대로써 대담한 젊은 패션과 대중음악과 춤에 있어서의 새로운 스타일을 경험했던 1920년대와 1960년대의 패션에 나타난 유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패션의 주기성을 입증하고 앞으로 유행할 패션을 예측하고, 패션산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1920년대에 나타난 패션과 1960년대에 나타난 패션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위주로 고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1920년대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 배경 및 패션을 고찰한다.

둘째, 1960년대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 배경 및 패션을 고찰한다.

셋째, 1920년대와 1960년대의 패션경향에 나타난 유사성을 비교 분석한다.

## II. 이론적 배경

각 사회나 시대마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패션은 이러한 이상적인 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Kefgen은 패션이란 특정한 시대에 거대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진 스타일<sup>4)</sup>이라고 하였으며,

Beeson은 패션은 주어진 시대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스타일<sup>5)</sup>로 보았다. 변화하는 패션을 이해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 시대의 의복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철학, 한 시대의 심미안, 경제적, 산업적 발달, 의복제작 기술의 발달을 포함하는 문화의 여러 요인들이 상호 연관되는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이다.<sup>6)</sup>

비록 복식 분야에서 두드러질지라도 패션은 많은 분야에서 작용한다. 즉 그림, 음악, 드라마, 건축, 실내장식, 오락, 문학, 의학, 사업경영, 정치적 신조, 철학, 심리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심지어 자연과학과 수학 같은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sup>7)</sup> 패션은 항상 모던하다. 패션은 항상 시대에 뒤지지 않고 따라 가려고 한다. 패션은 주어진 분야뿐만 아니라 인접분야에서도 널리 유행하는 발달의 변화에 민감하다. 그래서 여성복식에 있어서의 패션은 그 자체의 경향, 직물과 장식에 있어서의 발달, 그리고 예술의 발달, 흥분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 정치적 사건 그리고 청춘예찬의 고조나 여성해방과 같은 중요한 변화에 쉽게 감응한다.<sup>8)</sup>

20세기의 전반기는 모더니즘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의 모더니즘은 과거의 인습을 거부하고 기술적 진보에 대한 성급한 열정에 들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려 했던 운동이다. 전통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혁신과 변화의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sup>9)</sup>

모더니즘은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 전반에 걸쳐 일어난 운동이며, 전통과 인습을 과감히 타파한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은 각 분야에서 일어났다. 이런 시대정신과 더불어 예술에 변혁을 가져오게 한 또 하나의 원동력은 제 1차 세계대전이다. 인류의 문명을 잿더미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의 가치관이나 도덕을 붕괴시킨 전쟁은 오히려 모더니즘이 성장하는데 너할 나위 없이 좋은 문화적 토양을

3) David Bond, *20세기 패션*, 정현숙 역 (서울: 경춘사, 2000), p. 194.

4) M. Kefgen and P. Touchie-Specht, *Individuality* (N.Y.: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81), p. 131.

5) M. S. Beeson, *Apparel as an Economic Good*, in L. M. Gurel, M. S. Beeson,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1975), p. 125.

6) J. C. Lauer and R. H. Lauer, *Op. cit.*, p. 18.

7) H. G. Blumer, "Fashion",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pp. 341-342.

8) *Ibid.*, p. 343.

9) 스티어트 홀, *모더니티의 미래*, 전효권, 김수진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0), p. 277.

마련해 주었다.

1920년을 중심으로 서구문학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위대한 예술작품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건축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은 일체의 양식이나 장식의 속박으로부터 탈피하여 일체의 장식을 거부하고 건축의 목적에 비추어서 그들의 과업을 새롭게 보고자 했다. 건축의 모더니즘은 대담한 장안과 혁신의 가치로 널리 인식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20세기 전반기의 문화적 양식과 운동을 기술하는데 사용되었던 모더니즘이라는 용어에 뒤이어 나타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용어이다. 회화에서 나타난 추상과 비구상의 실천, 근대 건축의 하이테크 기능주의, 문학 형식에서의 아방가르드적 실험 등으로 대표되는 모더니즘은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19세기의 사실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적 기법으로 부르주아적 취향에 '충격'을 주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모더니즘은 결국 '길들여지는' 과정을 통해 국제양식으로 제도화되면서, 중국에는 세계의 모든 현대적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기업 자본주의의 '기념비'적인 마천루, 현대풍의 박물관과 화랑, 그리고 국제적인 미술품 시장 등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상생활, 시장과 소비,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새로운 대중문화에 더욱 밀착된, 새롭고 보다 민중적인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문화는 형식의 순수성과 절대성, 그리고 엘리트주의를 거부하고 보다 발달하고 역설적이며 절충적인 양식을 취하고 있다.<sup>10)</sup>

포스트모던이란 말은 1870년경부터 문화적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서의 의미가 처음 형성되었다.<sup>11)</sup> 6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민중주의적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고급 모더니즘 범주의 경직성을 거부하는 세대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포스트모더니즘의 논객들은 모더니즘이 종종 과

학과 진보라는 이름아래 지적, 정치적 지배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일종의 해방의 형식, 즉 파편화되고 복수화된 문화와 사회 집단이 다양성이라는 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소수 집단의 관점 - 이를 테면 소수민족집단, 페미니스트, 게이, 그리고 다양한 입장과 취향을 가진 분파나 켈트 집단들 - 이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나아가 모더니즘에서는 '비합리적이고' '경솔한 절충주의' 혹은 '정치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 일축되었을 문화적 기호와 담론들의 예측하지 못했던 조합과 혼성모방 등도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열어놓은 사회적, 문화적 복수성과 정치적 가능성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sup>13)</sup>

본 연구에서는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1920년대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으로 보는 1960년대의 다른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젊음의 숭배와 활기찬 격동의 시대로써 여러 면에서 서로 유사한 대담한 젊음이 패션, 대중음악, 춤 등 대중문화의 새로운 스타일을 경험했던 1920년대와 1960년대의 패션의 유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I. 192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 배경 및 패션

#### 1. 1920년대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 배경 및 패션

1920년대는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이 우세한 시기였다. 모더니즘의 개념은 문화적 전통의 거부와 새로운 것의 창조를 나타내며, 1920년대에 예술 전반에 걸쳐 일어난 운동이다. 전통과 인습을 과감히 타파한 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은 각 분야에서 일어났다. 모더니즘은 주관성과 개인주의를 그 기본원칙으로 삼았으며, 건축에 있어서의 일체의 건축양식이나 장식의 속박에서 탈피하여 건축의 기능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1920년대의 패션에서도 이러한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패션경향이 나타났다.

1920년대는 춤의 재즈 시대였고, 춤에 대한 열광

10) *Ibid.*, pp. 283-284.

11) 존 스토리,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9), p. 225.

12) *Ibid.*, pp. 227-229.

13) 스텐어트 홀, *Op. cit.*, pp. 281-282.

으로 땡고 춤은 전쟁 후 사람들에게 구원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차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켰다. 남편이 전쟁에 참가했던 많은 여성들은 독립적이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더 많은 여성들이 사무실과 공장으로 진출했다. 사무직 여성의 고용은 젊은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젊은 여성들은 스포츠에 참가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여행하고,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가졌다. 대도시에서는 성적인 도덕심이 더 해이해졌다.<sup>14)</sup>

1920년대의 패션은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았다. 전쟁에 군인으로 나간 남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자들이 공장과 기타 사회적 분야에 진출했다. 이러한 여자들의 사회적 진출은 여성 복장에 합리성과 기능성을 추구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sup>15)</sup>

여성들의 많고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그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새롭게 획득한 자신감과 신체의 자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의복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의 인간의 이상적인 비의 형태는 완전히 변화했다. 갑자기 여성들은 더 이상 곡선미로 기대되지 않고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신체가 아름다운 인체로 여겨졌다. 가느다란 힙과 납작한 가슴, 작은 머리와 긴 다리를 갖고 싶어했다.<sup>16)</sup> 이 시대의 패션에 있어서 풍부한 직물의 양과 과도한 장식은 구식이 되었다. 새로운 실루엣은 프리이나 다른 거주장스러운 세부 장식이 없는 단순하고 날씬한 것이었다. 여성들은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스커트는 무릎을 거의 덮지 않을 정도까지 길이가 더욱 더 짧아졌다. 드레스와 스커트는 허리, 엉덩이, 그리고 가슴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직선으로 재단하였고, 가슴은 가능한 한 납작하게 보이게 하였다. 소년다움이 열망되었고, 양성화는 새로운 유행하는 단어가 되었다. 새로운 여성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짧고 직선적인 드레스를 입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자신감을 내비쳤다.<sup>17)</sup> 젊음의 숭배가 1920년대 패션에 처음으

로 나타났다.

1920년대 패션은 비의 이상에서 뿐만 아니라 더욱 관대한 사회와 새로운 종류의 스포츠와의 협조를 통해서 그 자체가 병백해진 새로운 신체 자각에 의해 정의되었다. 이상적인 타입은 짧은 머리카락을 가진 소년같이 호리호리한 형이었다.

1920년대 디자이너들은 성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상징으로 “자유 수트(freedom suit)”를 창조하기 위해 작업했던 것이 아니었고, 성별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려는 양성적인 드레스 코드를 창조하기 위해 작업을 하였다. 스커트와 머리카락이 더 짧아지는 동안 가슴은 더 납작하게 되었다. 그레타 가르보와 마들렌느 니트리히는 이러한 새롭고 특별한 남성과 여성간의 매력적인 혼합의 모델이 되었다.<sup>18)</sup>

1920년대의 혁신적인 여성복식의 스타일은 로우 웨이스트(low waist)의 직선형의 실루엣이 유행하였으며, 주름이나 리본, 짧게 너풀거리는 스커트, 스커트 단을 불규칙한 곡선으로 처리하는 등 남성적인 스타일이었다. 직사각형 형태의 실루엣은 기계적 생산의 메끄러움을 강조하였다. 가슴을 납작하게 하였으며 스커트를 짧게 함으로써 그들의 다리를 과시하기도 하였고, 벨트는 힙에 걸쳤으며, 허리선이 힙까지 내려왔다. 인체의 곡선은 무시되었고, 여성의 인체는 가슴, 허리, 힙이 없는 tube(管)와 같이 다루어졌다. 짧은 스커트가 유행함에 따라 스타킹과 구두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실크 실크 스타킹이 1924년에 젊은 여성에게 매우 유행하였다.(그림 1)

전쟁 직후 세계는 삶에 대한 열망으로 휩싸였고, 사회적인 개혁보다는 자기 자신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1920년대를 재즈와 광란의 시대라 부르기도 했다.

1925년에는 스커트 길이가 짧아졌고,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바지를 입는 것이 눈에 띄었고,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스트레이트 박스 스타일의 투피스 수트를 착용했다. 여성의 스포츠 열기는 높아지고 바지

14) Gertrud Lehnert, *Fashion* (London: Laurence King, 1999), p. 128.

15)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7), p. 365.

16) Gertrud Lehnert, *A History of Fashion* (Germany: Konemann, 2000), p. 21.

17) Gertrud Lehnert, *Op. cit.*, p. 129.

18) Charlotte Seeling, *Fashion* (Cologne: Konemann, 2000), p. 32.



〈그림 1〉 로우 웨이스트의 직선형 실루엣으로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 1920년대 패션. 1926.  
(*Women of Fashion*, p. 72)

는 스포츠 웨어로써 필수품이 되었다. 스커트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스타킹이나 구두에 관심이 집중되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상의 양말이나 구두가 유행하였다.<sup>19)</sup>

스포츠 웨어 디자인의 선구자는 코코 샤넬이었다. 그녀의 가벼운 저지로 만들어진 레저 수트는 평상복 패션으로 받아들여졌다. 1920년대 중반에 ‘점퍼 양상블’과 무릎 바로 아래 길이의 넓은 주름 스커트가 유행하였다. 1920년대 중반에 일상복의 길이가 짧아진 결과로서 짧은 스커트는 테니스 복으로 허용되었다.<sup>20)</sup>

속옷은 부피가 줄었고, 무게가 가벼워졌다. 젊은 여성은 콜셋이나 화운테이션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슬립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속옷은 유행하는 직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직선으로 제한되었다.

전쟁이 여성해방운동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자신이 남성들과 동등함을 인식하게 된 여성들은 수세기 동안 자신들을 묶어 놓았던 종속에 대한 첫 반응으로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짧은

단발머리가 유행하였다. 모자는 이마와 귀 모두를 덮도록 머리 깊숙이 착용되었으며, 가장 유행한 모자는 귀 주변까지 잡아당긴 cloche 모자였다.

단순한 헤어스타일의 보상으로 입술과 눈이 강조되었다. 유명한 하트모양과 붉은 체리 색 입술이 유행하였다. 눈은 아이라인을 그렸고, 눈썹은 뽑혀졌다.<sup>21)</sup>(그림 2)

1920년대 패션은 여성의 곡선미가 더 이상 추구되지 않았으며, 가슴과 허리, 엉덩이의 곡선을 드러내지 않는 직선적인 실루엣이었다.

1920년대의 패션이 젊은이들의 것이라면 1930년대는 어른들의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패션은 스커트에 바이어스 컷트를 이용하여 스커트 도련이 플레어지는 형태가 유행하였다. 1920년대에 로우 웨이스트 라인과 다리의 각선미를 대담하게 나타내기 위해 스커트 길이가 짧아졌던 것이 1930년대에 와서는 스커트 길이가 종아리 길이로 길어지고 허리선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변화가 있었다. 또한, 몸통은 꼭맞고 어깨가 넓어지는 등 여성의 가슴, 허리, hips를 강조하는 스타일인 곡선적인 실루엣이 유



〈그림 2〉 하트모양의 붉은 색 입술과 아이라인이 강조된 1920년대 패션. 1927.  
(*Icons of Fashion*, p. 33)

19) 정홍숙, *Op. cit.*, pp. 368-369.

20) Gerda Buxbaum, *Icons of Fashion* (New York: Prestel, 1999), p. 35.

21) Gertrud Lehnert, *Op. cit.*, p. 26.

행하였다. 1940년대 패션은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각진 어깨, 짧은 스커트의 테일러드 슈트 스타일인 밀리터리 룩이 유행하였다. 전쟁이 끝난 1947년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는 뉴 룩을 발표하였다. 뉴 룩의 아워글래스 실루엣은 여성적인 곡선미를 나타냈다. 뉴 룩 이래로 1950년대의 패션은 인공물을 사용하여 뾰족한 가슴과 가는 허리의 이상형을 형성했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같은 여배우는 글래머러스한 패션을 유행시켰다. 1960년대는 활동적이고 단순한 스타일로, 1920년대를 지배했던 샤넬의 슈트나 플레퍼 스타일, 또는 가르손느 스타일 등이 다시 유행하였다.<sup>22)</sup> 1920년대 이래로 남성과 여성의 혼합인 양성적인 스타일이 1960년대가 되기 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30년대, 40년대, 50년대의 패션은 전체적으로 여성적인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20년대 패션과 1960년대 패션의 유사성은 패션이 주기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1960년대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 배경 및 패션

1960년대는 새로운 창조력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시대였고 영 패션(Young Fashion)의 시대이기도 하였다. 잡지, TV, 영화 등 대중매체의 발달로 대중문화가 급속히 발달하였고, 1969년에는 미국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과학혁명의 시대가 열렸다.

미, 소간의 관계는 쿠바(Cuba)위기 등으로 냉전이 심화되었고, 베트남전은 미국 내에서 사회혼란을 가져와 청년시대의 반전운동으로 신 좌파와 히피를 탄생시켰다. 이들 사이에는 물질만능과 성공 지향적인 가치관에 대한 반항의식으로 머리모양, 의복, 습관, 사고방식 등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는 옵아트, 팝아트, 미니멀리즘과 같은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예술사조가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크게 성행했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대담한 무늬의 사용, 강렬한 색의 배합과 기하학적 무늬로 특수한 시각적 효과를 노린 것 등 패션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났다. 패션의 주류는 보다 활동적이고 단순

한 스타일과 1920년대를 지배했던 샤넬의 슈트나 플레퍼 스타일 등이 다시 유행했다. 이들은 단순함과 실용성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젊은층의 생활감각에 잘 맞았다.

1960년대는 20세기의 주된 사회변화와 대담한 젊은 패션과 대중음악에 있어서 새로운 스타일을 경험했다.

젊은 그룹은 음악과 스타일에 사로잡혔다. 영국은 성공적인 팝싱어와 그룹이 있었으며, 비틀즈는 국제적인 대중음악의 선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젊은이들은 비틀즈의 음악과 모습을 좋아하였고 그들의 스타일을 모방했다. 비틀즈는 청소년들에 의해 젊은이의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젊고 활발한 대중음악, 트위스트 춤과 그들의 패션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젊은이들의 새롭게 소비하는 힘은 음악과 패션에 집중되었다. 패션과 음악은 역사적으로 최초의 중요한 젊은이의 신문화를 구축한 쌍둥이 기둥을 형성했다.

존 스테펀에 따르면, 비틀즈와 롤링스톤즈가 어떤 스타일을 채택했을 때, 팬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주목하고 같은 의복을 사기를 원했다<sup>23)</sup>고 하였다. 대중음악의 스타일이 펑크, 디스코, 그리고 록큰롤을 대신하는 힙합으로 변할지라도 음악은 청년 문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며 그래서 젊은이의 패션에 계속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중류계층의 가치관과 규정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반항으로 10대 특히 젊은 여성들은 성별을 정의하는 표시를 희미하게 하는 미의 양성적인 이상에서 그들 자신을 재발견하였다. 그래서 비틀즈는 여자같이 긴 머리를 하고 나타났고, 반면에 젊은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남자같이 짧게 잘랐다. 양성은 거의 어린이에 같은 젊음과 관련이 있었다.<sup>24)</sup>

1920년 장 단지 길이 스커트는 최고로 간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5년 내에 지마단은 전래 없이 무릎 길이까지 올라갔다. 정확한 수평 라인이 40년 후에 나타났다. 1960년대는 1920년대의 가장 짧았던 스커트 길이로 시작되었다. 스커트 단선은 대부분 사람

22) 정홍숙, *Op. cit.*, p. 390.

23) Valerie Steele, *Fifty Years of Fashion*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7), p. 55.

24) Gerda Buxbaum, *Op. cit.*, p. 92.

들이 생각할 수 있는 높이 만큼이었다. 1960년대 중반 경 허벅지 길이 미니 스커트가 소개되었고 가장 짧은 길이로 알려졌다.<sup>25)</sup>

영국의 디자이너 마리 퀴트는 바디스, 페티코트나 프릴이 없는 편안하고 느슨한 덧입는 겹옷을 창조했다. 1958년에 그녀는 어른을 위한 옷보다는 어린이 옷과 같이 보이는 매우 짧은 드레스를 처음으로 디자인했다. 그녀의 직선적이고 소매가 없으며, 작고 주름이 있는 스커트가 달린 튜닉 스타일의 디자인이 성공적으로 판매되었다.<sup>26)</sup>(그림 3)

전통적으로 여성의 의복에 있어서 에로티시즘은 여성의 가슴과 힙의 두 형태의 곡선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1960년대에 신체 노출은 점차 다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모든 관심은 온통 다리에 집중되었다. 1960년대 증엽의 여성패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떠오른 현안은 상식과 규칙의 파괴였다. 1962년과 1963년에 치마단은 선례가 없는 높이로 올라갔고, 미니스커트는 젊은이의 패션으로 가장 유명해졌다.<sup>27)</sup> 새로운 신체적인 이상형은 가냘프고 거의 소녀

같은 형태였다. 곡선적이고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가진 성숙하고 임신 가능한 여성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대신 매력적인 신체형은 성이 없고 어린애 같은 여성이었다. 이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트위기(Twiggy)였다. 트위기는 1960년대 시대정신의 화신이었고, 바로 상징이었다. 트위기의 신체치수는 점진적인 굶주림의 다이어트의 도움으로 그들 우상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10대 여성들의 꿈과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sup>28)</sup>(그림 4)

어린애 같은 외모는 화장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눈은 크게 만들어졌고, 입술은 립글로스를 사용했다. 눈 화장은 다양한 아이 세도우 색상과 눈의 아래와 위에 진한 라인을 그렸고, 여러 겹의 바스카라와 가짜 속눈썹을 달았다. 짧은 헤어컷, 기하학적 드레스 모양, 정돈된 팝아트와 옴 아트 패턴, 밝은 색상이 모두는 트위기에 의해서 대표되는 깨끗한 외모인 젊음을 나타내는 데 기여했다.

옴 아트의 작품은 색이나 흑백의 문양과 선의 미묘한 변화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애매하고 종종 험기



〈그림 3〉 어린아옷과 같이 보이는 매우 짧은 드레스인 1960년대 패션. 1966.  
(*Fifty Years of Fashion*, p. 59)



〈그림 4〉 1960년대의 이상적인 모델로 우상화되었던 트위기(Twiggy). 1966.  
(*A History of Fashion*, p. 57)

25) David Bond, *Op. cit.*, p. 194.

26) Gerda Buxbaum, *Op. cit.*, p. 82.

27) Valerie Steele, *Op. cit.*, p.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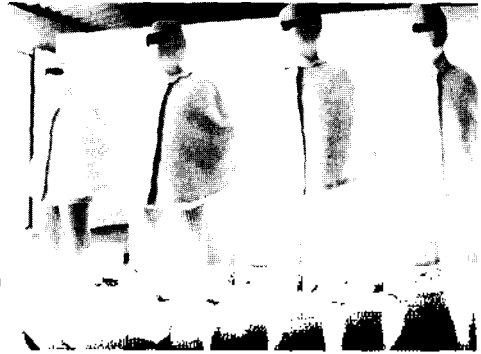
28) Gerda Buxbaum, *Op. cit.*, p. 92.

증 나는 움직임의 제한했다. 이러한 시각적 환상의 그래픽적 단순함은 팝 아트를 직물과 패션디자인에 채택하도록 만들었다.<sup>29)</sup>

팝 아트는 1960년경에 뉴욕과 영국에서 최초로 나타났다. 팝 아트 예술가 중 앤디 워홀은 패션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팝 아트' 패션은 팝 아트의 대담한 초상 목을 모방한 디자이너들에 의해 생산되었다. 이것은 종종 '워홀' 목을 의미했다. 입생 로랑은 팝 아트 목을 모방한 그 자신의 이미지를 고안했고, 미국인 디자이너 홀스톤은 워홀의 꽃 시리즈로부터 직접 빌려온 큰 꽃무늬 프린트를 한 드레스를 창조했다.<sup>30)</sup> 입생 로랑의 1965년의 몬드리앙 드레스는 네덜란드의 추상화가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의 1966년의 팝 아트 드레스는 앤디 워홀과 틴 웨슬만과 같은 동시대의 미국 화가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다.<sup>31)</sup>

1964년은 푸레쥬의 "우주시대" 콜렉션이 세계의 톱뉴스가 되었던 해였다. 푸레쥬의 디자인은 강하고 현대적이며 자극적이었고, 1960년대 동안 우주 탐험에 대한 많은 흥미의 반영이었다. 푸레쥬 디자인은 우주 탐험의 매력을 집약적으로 나타냈다. 그의 테니스 공 같은 선글래스는 외계인이 스포츠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눈의 트임을 가졌고, 그의 하얀 실험실 가운에는 규격화된 색이 있는 새칸들이 반짝였다. 우주시대 패션은 모, 실크, 면과 같은 전통적인 소재를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조섬유 그 중에서 특히 플라스틱을 강조하였다. 플라스틱은 미래의 움직임이었다. 우주시대 패션에 대한 대부분의 흥미를 자아내는 것은 유니섹스의 개념이었다.<sup>32)</sup> (그림 5) 세계의 젊은이들은 1968년에 반항을 분출하였다. 패션에 미친 영향은 즉각적이고 강력했다.

'60년대 패션의 다음의 큰 현상은 미국에서 이미 시작한 히피 운동이었다. 꽃의 힘은 우주시대의 미래주의를 대신했다. 히피의 머리카락은 길고 야성적이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히피들도 평화와



〈그림 5〉 1960년대 우주 탐험의 매력을 나타낸 푸레쥬의 "우주시대" 패션. 1968.

(A History of Fashion, p. 69)

사랑의 말로 남자다움을 재 정의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긴 머리카락에 꽃을 꽂았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청바지와 티셔츠는 유니섹스 의복이었다. 남성의 긴 머리카락은 사회적 동조성과 성적인 속박에 대한 그들의 반항을 상징하였다. 또한 보석도 점차 유니섹스화 되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예쁜 구슬과 민족 특유의 보석을 장식하였다.<sup>33)</sup> 1960년대의 패션은 전적으로는 더욱 실험적이고 창의적이며 경쾌한 차림으로 가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점점 더 비슷해졌으며, 그 중에서도 청바지는 가장 인기 있는 공통분모였다.

같은 소재와 색으로 만든 바지와 셔츠가 남녀에게 착용되었다. 출판물은 '유니섹스' 패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sup>34)</sup>

1960년대 패션 혁명의 지배적인 특성은 "젊은이의 반란"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70년대 패션은 일상적이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캐주얼 스타일과 유니섹스 스타일의 팬츠 슈트가 유행하였다. 클래식 슈트 같이 몸의 곡선을 아름답게 다듬어 주는 의상과 바지통이 넓어진 클래식한 팬츠 슈트, 그리고 드레이퍼리, 프릴 등의 여성스러운 복고풍 디테일이 다시 등장했다. 1980년대 패션은 서

29) *Ibid.*, p. 90.

30) *Ibid.*, p. 97.

31) Valerie Steele, *Op. cit.*, p. 61.

32) Gerda Buxbaum, *Op. cit.*, p. 89.

33) Valerie Steele, *Op. cit.*, p. 72.

34) David Bond, *Op. cit.*, p. 200.



로 다른 문화나 주제가 복합되어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특성이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패션은 이전처럼 하나의 패션경향이 나타나면 다른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새롭게 추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80년대의 패션은 동서양식의 절충, 서로 다른 이미지의 절충 등을 표현하는 절충주의,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해체에 의한 앤드로지너스 룩, 복고풍 그리고 장식성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남성적인 스타일에 실크 블라우스나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부드러운 여성성을 가미하거나 반대로 여성적인 스타일에 남성적 요소를 도입하는 등 복식을 통한 남녀의 구분을 해체하고 양성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였다.<sup>35)</sup> 1990년대는 패션에 있어서 새로운 글로벌리즘이 대두되었다. 케이블 T.V., 위성방송, 인터넷, 패션 잡지 등을 통하여 패션은 국가와 문화의 장벽을 쉽게 뛰어넘어, 세계인이 공유하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여성들은 다이어트와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영원한 젊음을 추구하였다. 1990년대 패션은 자연주의, 민속풍, 복고풍이 패션 테마의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에는 특별히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것을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1960년대 이후의 패션 흐름을 살펴보면 패션은 주기성이 있으나 규칙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 IV. 1920년대와 1960년대의 패션 경향에 나타난 유사성

1920년대와 1960년대는 20세기의 격동적이고 활기찬 시대로써 대담한 젊은 패션과 대중음악과 춤에 있어서 새로운 스타일을 경험했다.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1920년대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으로 보는 1960년대의 다른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추구하는 미의 이상은 유사했다. 따라서 1920년대와 1960년대 패션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 1. 젊음의 숭배

1920년대와 1960년대 패션은 과거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젊은이들에 의해 추종되었다. 젊음의 숭배는 1920년대의 고안이었고, 1960년대 현상은 부활이었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사회의 해방과 변화의 느낌, 전쟁 이전의 사회적 행동의 '고루한 관습'에 도전하려는 충동이 있었다.<sup>36)</sup> 경제가 발전하고 주된 사회변화로 인하여 대담한 젊은이 패션, 대중음악, 춤 등 대중문화는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다. '발랄한 젊은이들'은 젊음의 원기 왕성함과 쾌락주의의 이미지이며, 젊은 세대는 이전에는 결코 갖지 못했던 사회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젊은이들은 음악과 패션 분야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다. 젊은이의 에너지와 과감성은 남녀 모두에게 숭배되었다. 1920년대와 1960년대 패션은 매우 짧게 나타났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젊음을 추구하는 이상으로 취향이 변화하였다. 짧은 드레스와 짧은 헤어스타일은 젊음을 표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스커트 길이가 짧아졌고, 짧은 스커트는 젊은이의 패션으로 유행하였다. 1920년대와 1960년대의 젊은 남성들은 호리호리하고 경쾌하게 옷을 입은 여성을 매력적으로 생각했다.(그림 6, 7)



〈그림 6〉 젊은이들에 의해 추종된,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 1920년대 젊은이 패션. 1927. (Women of Fashion, p. 72)

35) 금기숙, 김민자 외, *현대패션 100년* (서울:교문사, 2003), pp. 271-272.

36) Elizabeth Rouse, *코트셋에서 핑크까지*, 이재한 옮김 (서울: 시지락, 2003), p. 218.



〈그림 7〉 젊은이들에 의해 추종된,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 1960년대 젊은이 패션. 1967.  
(*Costume & Fashion*, p. 266)



〈그림 8〉 여성스런 곡선미가 거부된 양성적인 직선의 실루엣, 1927.  
(*Women of Fashion*, p.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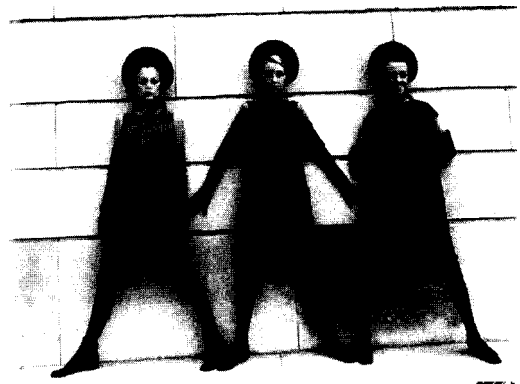
**2. 양성화 (Androgyny)와 유니섹스화 경향**

1920년대와 1960년대의 이상적인 신체형은 짧은 머리카락을 가진 가냘프고 거의 소녀 같은 형태였다. 곡선적이고 아워클래스 실루엣을 가진 성숙한 여성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생각되지 않았고, 매력적인 신체형은 성이 없고 어린이 같은 여성이었다. 1920년대와 1960년대는 양성적인 드레스 코드가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여성 의복에 있어서 에로티시즘은 여성의 가슴과 힙의 두 형태의 곡선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가슴은 납작하게 되었고, 스커트와 머리카락이 짧아졌다. 오랫동안 여성의 속성으로 경탄되어 왔던 모든 곡선은 완전히 거부되고, 직선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간의 매력적인 혼합이 이상적인 미가 되었다.(그림 8, 9)

1920년대에는 젊은 남성과 여성의 활동이 보다 유사해져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같은 스포츠와 오락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의상 스타일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생기게 되었다.<sup>37)</sup>

1920년대와 1960년대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과 여성의 스포츠 열기로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바지를



〈그림 9〉 여성스런 곡선미가 거부된 양성적인 직선의 실루엣  
(*Icons of Fashion*, p. 83)

입었고,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스트레이트 박스 스타일의 투피스 슈트를 착용했다. 여성들은 남성 스타일을 차용했으며, 여성의 스포츠에 대한 열기로 바지는 스포츠 웨어의 필수품이 되었다. 레저 슈트는 평상복 패션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다는 여성들의 인식은 여성들로 하

37) *Ibid.*, p. 229.

여름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게 하였다. 여성들의 머리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음에 반해 일부 남성들은 이전보다 머리를 더 길게 길렀다. 그리하여 짧은이 대다수의 머리 스타일이 거의 동일해졌다. 특히 평상복의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실루엣이 거의 비슷해졌다. 여성의 복식이 남성 복식과 동일한 모양으로 변해갔고 유니섹스화 되었다.(그림 10, 11)



〈그림 10〉 유니섹스화된 1920년대 패션. 1926.  
(*Costume & Fashion*, p. 236)



〈그림 11〉 유니섹스화된 1960년대 패션.  
(*Fashion*, p. 394)

### 3. 단순화

패션의 변화는 사회적 이상에 의존한다. 1920년대와 1960년대의 미의 이상은 단순성이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많고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의복에 있어서도 장식을 없앤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단순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단순하고 실용적인 의복은 신체적인 자유와 행동의 즐거움을 주었다.

단순화는 1920년대와 1960년대 패션에서 반영되었는데, 이전의 긴 스커트, 많은 장식, 풍성한 스커트에서 벗어나 직선, 짧은 스커트, 짧은 머리, 소매 없는 드레스 등에서 복식의 단순성을 찾아 볼 수 있다.(그림 12, 13)

### 4. 패션의 혁신성과 기능성

수세기 동안 여성의 인체를 속박해 온 폴셋의 거부가 전통의 거부였으며, 여성의 새로운 자유의 반영이었다. 스커트 길이의 변화는 혁신적이었으며, 짧은 스커트 길이는 활동을 촉진시켰다. 전통적으로 여성 의복에 있어서 에로티시즘은 여성의 가슴과 힙의 두 형태의 곡선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신체 노출은 다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랫동안 여성의 속성으로 경탄되어 왔던 모든 곡선은 완전히 거부되고, 직선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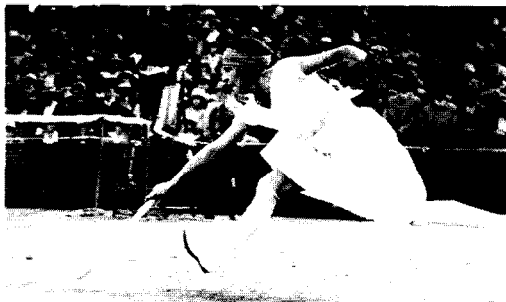


〈그림 12〉 장식이 배제된 단순하고 혁신적이며 기능적인 1920년대 패션. 1926.  
(*Costume & Fashion*, p. 232)



〈그림 13〉 장식이 배제된 단순하고 혁신적이며 기능적인 1960년대 패션. 1967.  
(A History of Fashion, p. 64)

시대정신의 영향으로 스커트 길이가 짧아져서 활동성과 실용성을 주었으며, 폴셋이나 많은 장식 등이 배제된 단순하고 가벼운 의복으로 기능성을 나타냈다. 여성들은 자유모임을 느꼈고, 스포츠와 춤을 즐겼으며, 직업을 듣는 의복을 선택하고 일하기에 편리한 의복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성과 호울적으로 경쟁하기 위하여 기능적인 의복이 필요했다.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의복 스타일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기능성은 새로운 자유와 스



〈그림 14〉 무릎 길이의 주름이 잡힌 테니스 복으로 1920년대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패션에 영향을 미침. 1921.  
(Icons of Fashion, p. 35)



〈그림 15〉 새로운 자유와 스포츠에 추가하는 기능성과 활동성을 나타낸 마리 퀴트에 의해 디자인된 1960년대 패션. 1967.  
(A History of Fashion, p. 65)

포츠에 참가하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스포츠 웨어에도 나타났다. 여성들의 바지 착용도 기능성과 실용성을 나타냈다.(그림 14, 15)



〈그림 16〉 젊음과 양성적인 미를 나타낸 1920년대의 짧은 단발머리. 1928.  
(A History of Fashion, p. 21)



〈그림 17〉 젊음과 양성적인 미를 나타낸 1960년대의 짧은 단발머리. 1964.  
(*Fashion*, p. 395)

#### 5. 짧은 단발머리

1920년대와 1960년대는 그 시대의 이상적인 미인 젊음과 양성적인 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짧은 단발머리가 유행하였다. 헤어스타일은 귀와 목덜미를 완전히 노출하는 형태였다.(그림 16, 17)

#### 6. 눈을 강조한 화장

단순한 헤어스타일의 보상으로 눈이 강조된 화장



〈그림 18〉 눈이 강조된 화장이 유행한 1920년대 패션.  
(*Fashion*, p. 124)



〈그림 19〉 눈이 강조된 화장이 유행한 1960년대 패션.  
(*Icons of Fashion*, p. 99)

이 유행하였다. 어린애 같은 외모는 화장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눈은 크게 만들어졌다. 눈 화장은 아이 세도우와 눈의 위와 아래에 진한 라인을 그렸고 여러 겹의 마스크라와 가짜 속눈썹을 달았다. 이러한 화장은 깨끗한 외모인 젊음을 나타내는데 기여하였다.(그림 18, 19)

## V. 결 론

1920년대와 1960년대의 공통적인 시대정신은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장식이 배제된 단순성, 기능성, 실용성, 활동성을 중시한 혁신적인 스타일을 채택하였다. 1920년대와 1960년대의 두 시대가 추구하는 미의 이상은 유사했다.

첫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젊음에 대한 숭배는 젊음을 추구하는 이상으로 변화하였다. 젊은이의 에너지와 과감성은 남녀 모두에게 숭배되었고, 짧은 드레스와 짧은 헤어스타일은 젊음을 표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둘째, 1920년대와 1960년대의 이상적인 신체형은 짧은 머리카락을 가진 가냘프고 거의 소녀 같은 형태였다. 매력적인 신체형은 상이 없

고 어린애 같은 여성이었다. 1920년대와 1960년대는 양성적인 드레스코드가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여성의복에 있어서 에로티시즘은 여성의 가슴과 힙의 두 형태의 곡선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가슴은 납작하게 되었고, 스커트와 머리카락이 짧아졌다. 곡선은 완전히 거부되고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간의 매력적인 혼합이 이상적인 미가 되었다.

셋째, 1920년대와 1960년대의 미의 이상은 단순성이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장식을 없앤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며 단순한 의복이 유행하였다. 직선적이며 짧은 스커트, 소매 없는 드레스, 짧은 머리 등은 복식의 단순성을 나타냈다.

넷째, 1920년대와 1960년대의 패션은 여성의 복식과 남성의 복식이 동일한 형태로 변하였고, 유니섹스화 되었다.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과 여성의 스포츠 열기로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바지를 입었고, 남성 스타일을 차용했다. 남성과 여성의 실루엣이 거의 비슷해졌으며, 버리스타일도 거의 동일해졌다. 남성과 여성의 유사한 의복 스타일인 유니섹스 스타일이 미의 이상으로 추구되었다.

젊은이 중심의 문화를 반영한 젊은층의 패션, 짧은 머리카락과 가냘프고 가슴이 납작한 신체형인 양성적인 스타일, 장식이 없고 신체적인 자유와 행동의 즐거움을 주는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기능적인 스타일, 혁신적 길이의 짧은 스커트, 여성의 복식이 남성복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유니섹스화 경향, 여성 의복의 곡선미를 배제한 직선적인 실루엣, 젊음과 양성적 미를 나타낸 짧은 단발머리와 눈이 강조된 진한 화장이 1920년대와 1960년대 패션의 유사성으로 분석되었다.

패션은 시대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회적 이상이 분명한 문화적 시기에는 패션의 유사성이 나타났다. 또한, 패션의 주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의 패션을 예측할 수 있고, 미래의 패션산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금기숙 외 (2003). *현대패션 100년*. 서울:교문사.
-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 데이비드 본드 (2000). *20세기 패션*, 정현숙 역. 서울:경춘사.
- 멜러리 멘데스, 에이미 드 라 헤이 (2003). *20세기 패션*, 김정은 역. 서울:시공사.
- 스튜어트 홀 외 (2000). *보더너티의 미래*, 전효관 외 역. 서울:현실문화연구.
- 엘리자베스 무즈 (2003). *코르셋에서 핑크까지*, 이제한 역. 서울:시지락.
- 존 스토리 (1999).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 역. 서울:현실문화연구.
- 질 리포베츠키 (1999). *패션의 재구*, 이득재 역. 서울:분예출판사.
- Baudot, François (1999). *Fashion*. New York: Universe.
- Becson, M. S. (1975). "Apparel as an Economic Good". in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L. M. Gurel, and M. S. Becson, Kendall / Hunt Publishing Company.
- Blumer, H. G. "Fashion" in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 Buxbaum, Gerda (1999). *Icons of Fashion*. New York: Prestcl.
- During Simon (1999). *The Cultural Studies Reader*, 2nd ed. London: Routledge.
- Geoffrey, Squire (1974). *Dress Art and Society, 1560-1970*. London: Studio Vista, Ltd.
- Gilroy Paul, Lawrence Grossberg and Angela McRobbie (2000). *Without Guarantees*. London: Verso.
- Horn, M. J. and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ufflin Company.
- Kefgen, M. and Touchie-Specht, P. (1981). *Individualit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Lauer, J. C. and Lauer, R. H. (1981). *Fashion Power*.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Laver, James (1982). *Costume & Fashion*. New York: Thames and Hudson.
- Lehnert, Gertrud (2000). *A History of Fashion*. Germany: Konemann.

- Lehnert, Gertrud (1998). *Fashion*. New York: Laurence King.
- Lynn, Schnumberger (1991). *Let there be clothes*. New York: Workman Pub.
- Mulvey, Kate and Melissa Richards (2000). *Decades of Beauty*. London: Hamlyn.
- Seeling, Charlotte (2000). *Fashion*. Cologne: Konemann.
- Steele, Valerie (1997). *Fifty Years of Fashion*.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 Steele, Valerie (1991). *Women of Fashion*. New York: Rizzoli.
- Stella, Blum (1974). *Everyday Fashion of the Twenties*. New York: Dover Pub.
- Ruby, Jennifer (1995). *The 1960's and 1970's*. London: B. T. Batsford Ltd.
- Yarwood, D. (1992). *Fashion in the Western World*. London: Batsford.